

주체성-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매개효과

노 승 훈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학생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교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중심,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중심 대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235명(남 83명, 여 14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체성-대상성 자기 척도, 한국판 스트레스대처 전략검사지, 삶의 만족 척도, 정서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주체성 자기와 정적, 대상성 자기와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주체성 자기는 문제해결중심, 사회적지지 추구는 정적, 회피 중심 대처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대상성 자기는 문제해결중심과 부적, 회피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 추구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지지 추구가 주체성 자기관과 안녕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피중심 대처가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활용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으며, 문화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스트레스 대처 맥락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 한계,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문화적 자기관, 주체성 자기, 대상성 자기, 스트레스 대처방식, 주관적 안녕감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2445, E-mail : khlee2445@yonsei.ac.kr

그동안 국내에서는 서구 문화에서 개발된 상담 이론과 기법들을 수입하여 활용해왔다. 이러한 접근 방식들은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정보와 경험에 대한 이해, 상담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등 다양한 목적에 의해 사용된다. 그러나 한 문화에서 개발된 상담적 접근은 그 문화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Aponte, 1994).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담적 접근은 대부분 개인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서구에서 도입된 것으로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Markus와 Kitayama (1991)에 따르면 개인이 속한 문화는 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정의와 해석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자기해석에 따라 내담자의 이해와 상담의 목표 설정, 접근 등이 달라질 수 있다(McGoldrick, 1992).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개발된 상담적 접근을 집단주의 문화에 속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김창대, 1994; 박외숙, 1992).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사고와 행동양식을 반영한 상담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되어 왔다(강진령, 2005; 박현경, 이영희, 2004;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허재홍, 진현정, 2008).

한편, 대학생들이 상담에 찾아오는 이유는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진로, 대인관계, 자기 인식 등 매우 다양한 주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우울, 불안을 유발하며, 신체적·정신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강하나, 2018; 기현정, 2010; 이옥형, 2012; 김나미, 김신섭, 2013).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상담적 맥락에서 내담자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써 연구되어 왔다(공수자, 이은희, 2006; 임유경, 최영민, 최지영, 2013).

그러나 맥락, 대처, 적응의 상호작용 모델에 따르면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자 활용하는 방식은 자신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Chun, Moos, & Cronkite, 2006). 문화는 개인의 가치관, 경험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동기 등 개인의 삶에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Diener, Oishi, & Lucas, 2003). 이로 인해 개인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평가와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 성향에 따른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 방식이 반드시 적응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화적 성향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활용의 차이는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창대 (1994)는 내담자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처하는 과정에는 자신이 속한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문화적 특성에 관한 상담 장면에서의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개인의 문화적 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문화적 특성이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한 상담적 접근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문화적 자기관

문화적 자기관(self-construal)은 관계적 맥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으로 정의되며,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개인의 심리적 과정 및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다(류승아, 김경미, 한민, 2014). 대표적인 문화적 자기관 개념은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있다. 이는 Markus와 Kitayama(1991)가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제안된 개념으로 관계 내에서 자신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자기관을 구분하였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타인과 독립된 존재로 지각하는 반면,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자신을 집단 및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지각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이 자신이 속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발달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개인주의 문화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을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주며, 집단주의 문화는 상호협조적 자기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되므로(Diener & Diener, 1995), 위의 문화적 자기관의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더 발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이누미야, 김윤주, 2006).

그러나 기존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개념에서 파생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이 집단주의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경, 이영희, 2004; 조궁호, 2002; Levine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는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 혼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다(류승아, 2010; Sigen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예를 들어 한유화와 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자아존중감과 각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와의 관계를 확인한 바 있는데 개인주의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개인적 성취, 상대적 우월감 등뿐만 아니라 집단주의 문화에서 중요시 여기는 노력, 타인의 인정, 타인과의 관계 또한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일본 간의 문화적 자기관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호독립적 자기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영, 이누미야, 김재신, 최일호, 2005). 이는 기존 Markus와 Kitayama(1991)의 제안과는 달리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 형성할 수 있는 자기 해석 또한 보다 세분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누미야(2003)는 관계를 중시하는 개인의 자기관은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영향력의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같은 관계와 소속감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는지 혹은 타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른 자기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호협조적 자기관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써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을 제안하였다(이누미야,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 자기관은 일본, 중국, 한국 등을 하나의 집단

주의 문화로 분류했던 기존 상호협조적 자기와는 달리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 내에서 보이는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다(이누미야, 2003). 주체성 자기관은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체로 보는 개념으로 자신의 지향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자기 관련 기능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능력, 그리고 잠재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부 준거 틀(소원, 이상, 비전 등)을 중심으로 자신을 인식하며, 자신을 둘러싼 외부에 대해 통제력을 갖으려 한다. 반면 대상성 자기관은 자신을 타인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존재로 지각하는 것이다. 대상성은 내부 준거 보다는 사회적 규범, 의무, 기대와 같은 외부 준거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며 이를 내면화하며, 자신 내부를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한다(이누미야, 2003; 이누미야, 김윤주, 2006, 이누미야 등, 2007).

새롭게 제안된 주체성-대상성 자기관이 같은 집단주의 문화 내의 차이를 반영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 문화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이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주체성이 대상성보다 우세한 반면, 일본의 경우 대상성이 주체성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누미야(2009)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반면,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이론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하나의 집단주의 문화로 분류하였으나,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도 관계적 맥락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누미야(2003)의 제안이 타당함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주체성 자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은 기존 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에 비해 집단주의 문화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특성의 차이를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념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은 비교적 새롭게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주관적 안녕감을 통해 문화적 자기관과 적응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Diener, 1984).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과 적응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주체성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대상성은 적응에 부적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류승아, 등, 2014). 장통통(2012)의 연구에 따르면 주체성 자기관은 학업 적응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상성 자기관은 유의미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김나래, 이기학(2016)의 연구에서는 주체성 자기와 진로 만족은 정적 상관을, 대상성 자기와 진로 만족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기관을 상위 정도에 따라 분류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체성 자기가 대상성 자기보다 우세한 집단은 주관적 행복, 대인관계 만족도(류승아 등, 2014), 심리적 안녕감(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3), 그리고 자기존중감(이누미야 등, 2007)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자기관은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대상성 자기관은 부적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개인이 가진 수용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나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 개인이 하는 모든 인지적, 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91; Pearlin & Schooler, 1978). Amirkhan(1990)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제해결 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중심의 세 가지 스트레스 대처 전략으로 범주화했다. 문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 자체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변화시키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지지 추구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타인, 지인 등 자신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하려는 행동을 뜻한다.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볼 수 있으나, 전자는 개인적 자원에 집중하는 반면 사회적지지 추구는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피 중심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신혜진, 김창대, 2002). 대처 양식과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중심 대처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에서 안녕감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며(강혜자, 2012; 오성희, 2010; Smedema, Catalano, & Ebener, 2010),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자, 이은희, 2006; 임유경 등, 2013). 또한, 사회적지지 추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혜자, 2012; 오성희,

2010; 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반면, 회피 중심 대처는 다수의 연구에서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경, 송미경, 양난미, 이동훈, 2016; 조민영, 2004; Davies & Clark, 1998).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활용 차이는 개인의 안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한 국내외의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회피 중심 대처는 안녕감과 부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Chun 등(2006) 문화적 성향이 개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대처 목표(coping goal)의 두 가지 차원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인이 주로 활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Lazarus & Launier, 1978).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기 전에 먼저 해당 사건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스트레스 사건을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며 혹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통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일차적 평가, 후자는 이차적 평가로 정의된다(Folkman, Lazarus, Gruen, and DeLongis, 1986).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일차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 이는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회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에서 대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과 손실을 감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반면,

이차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 이는 위협이 아닌 하나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도전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Folkman & Lazarus, 1984).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긍정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Aaker & Lee, 2001).

기존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성취,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중시한다(Kuo, 2011). 때문에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결과물에 집중하며, 스트레스에 대해 이차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Aaker, & Lee, 2001; Chang, 1996). 반면,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중요한 타인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따라서 집단 내에서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것 보다는 속한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이해하고 실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협이나 손실에 초점을 두며, 스트레스에 대해 일차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Singelis et al., 1995; Lee, Aaker, & Gardner, 2000; Essau & Trommsdorff, 1996).

둘째로 대처 목표는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를 반영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동기와 대처 방식을 조직하는 것을 돕는다(Kuo, 2013).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은 자신이 해당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와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도와 기대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신혜진, 김창대, 2002). 특히, 상호독립적 성향

을 가진 개인은 대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신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Cross, 1995; Chun et al., 2006). 이를 위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순응하기 보다는 이를 자신에게 맞게 변화시키고 이득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 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Parkes, 1984). 반면, 상호협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는 집단의 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Kuo, 2011). 따라서 외부 보다는 자기 내적으로 통제하고, 자신의 실수나 결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목표를 설정한다. 특히, 이러한 타인 중심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목표 설정은 개인에게 일정 부분의 자기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Anderson, 1977; Bjorck, Cuthbertson, Thurman, & Lee, 2001; Lee & Liu, 2001; Taylor et al. 2004; Wong & Ujimoto, 1998).

문화적 자기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은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대처 방식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며(Bjorck et al. 2001; Tweed, White, & Lehman, 2004),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은 정서 통제, 회피와 같은 소극적인 대처 방식에 정적, 그리고 사회적지지 추구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Essau & Trommsdorff, 1996; O'Connor & Shimizu, 2002;

Radford, Mann, Ohata, & Nakane, 1993; Kuo & Ginrich, 2005; Taylor et al. 2004). 그러나 상호 독립적-협조적 자기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Kuo & Ginrich, 2005; Chang, 1996, Tweed et al., 2004, Yeh & Inose, 2002). 예를 들어, Chang(1996)과 Tweed 등(2004)의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과 아시아 문화권의 사람의 사회적지지 추구 활용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집단주의 문화권을 세분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해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Yeh와 Inose(2002)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을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는데 사회적지지 추구의 활용에 있어서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세분화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보고 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은 새롭게 제안된 개념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류승아 등(2014)의 연구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의 기본적 특징을 바탕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대해 추론하고자 한다. 먼저, 주체성은 개인주의 문화적 성향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과는 구분되는 변인이다(이누미야 등, 2007). 주체성은 자기 자신을 관계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해석하는 개념으로써 관계 속에서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욕구를 충

족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체성 자기관이 집단의 개인적 성취를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평가에 있어서 주체성 자기관은 이차적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표 설정에 있어서 주체성 자기관은 소원, 이상 등 자신의 준거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며, 외부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고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류승아 등(2014)의 연구에서는 주체성이 대상성보다 우세한 경우 문제해결, 노력추구와 정적 관계가 있으며, 부인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들과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주체성 자기관은 문제해결중심,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회피중심 대처에는 부적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상성 자기관은 개인을 사회적 영향력을 수용하는 대상으로 지각하는 변인으로, 대상성 성향이 높은 개인은 타인의 영향력을 수용하고 보필함으로써 관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를 직접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집단의 규범과 의무에 순응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행동양식이 내재화될 수 있다. 또한, 대상성 자기관은 자기통제 차원에서 자기 내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상성 자기관의 특징은 일차적 평가와 집단주의 문화적 성향의 목표 설정에 기존 연구들의 제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상성 자기관은 회피 대처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문제해결중심, 사회적지지 추구에는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한가.

둘째,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가.

셋째,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대학의 학과연구심의위원회(DRC, 201702070501)로부터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는 남·여 대학생 총 2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 5명을 제외하고 총 2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 83명(36.1%), 여자 147명(63.9%)으로 여학생 참여비율이 더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20.92세($SD=2.04$)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평가지(Coping Strategy Indicator: 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국내에 맞게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지(K-CSI)를 사용했다. 문제해결 중심(예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사회적지지 추구(예시: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정을 털어놓았습니까?”), 회피중심(예시: “문제를 외면하려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까?”)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 11문항씩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참가자에게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대처방식을 떠올린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많이 했음(3), 조금 했음(2), 전혀 하지 않음(1)의 자기보고식 3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 요인별 높은 점수는 해당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혜진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사회적지지 추구가 .90, 문제해결 중심 대처가 .88, 회피 중심 대처는 .67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88, .86, .7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주체성-대상성 자기

주체성-대상성 자기관을 측정하기 위해 이누미야 등(2007)가 개발한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를 사용했다. 각 자기관당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별 높은 점수는 개인이 해당 자기관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체

성 자기관(예시: “나는 남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과 대상성 자기관(예시: “나는 리더라기보다는 따라가는 사람이다.”)에 해당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누미야 등(2007)의 연구에서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주체성 자기관이 .77, 대상성 자기관이 .7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6, .85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은 하위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측정하였다. 삶의 만족은 Diener, Emmons, Larsen, 그리고 Criffin(1985)이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를 이은경(2004)이 번안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한다”와 같이 삶의 만족과 관련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까지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은경(2004)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85로 나타났다.

긍정·부정 정서는 Diener, Smith, 그리고 Fujita(1995)가 개발한 Intensity & Time Affect Scale(ITAS)을 이은경(2004)이 번안한 정서측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측정 척도는 긍정 정서 8개(예시: “만족감”, “행복감”)와 부정 정서 16개(예시: “두려움”, “불행함”)의 단어에 대한 달간 경험한 빈도를 ‘전혀 느낀 적이 없다(1)’에서 ‘항상 느꼈다(7)’까지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은경(2004)의 연구에서 정적, 부정 정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0,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91, .93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점수는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의 평균의 합에서 부정 정서 평균을 뺀 차이점으로 산출했다(구재선, 서은국, 2009).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5.0과 SP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차이검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25.0을 활용하여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후, 집단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응 표본 t-test를 실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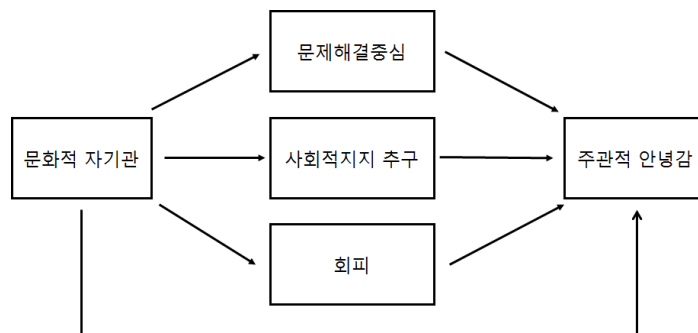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였다. 또한,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문화적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의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다중 매개분석(Multiple 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각 문화적 자기관(주체성, 대상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들이 병렬 매개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으며 Model 4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Hayes, 2012). 이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시 문제해결중심,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중심 대처를 모두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결 과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측정된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주관적 안녕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은 주체성 자기관($r=.15, p<.05$)과 정적 상관을, 대상성 자기관($r=-.2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문제해결중심($r=.21, p<.001$), 사회적지지 추구($r=.24, p<.0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회피($r=-.43,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주체성 자기관은 사회적지지 추구($r=.24, p<.001$), 문제해결 중심($r=.21, p<.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회피 방식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대상성

표 1. 변인간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1. 주관적 안녕감	-							
2. 주체성 자기관	.15*	-						
3. 대상성 자기관	-.20**	-.50***	-					
4. 문제해결중심	.21**	.25***	-.17**	-				
5. 사회적지지 추구	.24***	.14*	-.06	.33***	-			
6. 회피 중심	-.43***	-.07	.19**	-.05	.03	-		
7. 성별	-.01	-.13	.08	.18**	-.02	.16*	-	
8. 나이	-.12	.07	-.11	-.09	-.02	.09	-.10	-
평균	5.28	4.52	3.74	2.20	2.15	1.80	1.64	20.93
표준편차	2.85	1.13	1.05	.38	.44	.36	.48	2.04
왜도	-0.14	-0.28	0.05	0.02	0.08	0.16	-0.58	1.06
첨도	-0.37	-0.49	-0.35	-0.49	-0.39	-0.53	-1.67	1.00

* $p<.05$, ** $p<.01$, *** $p<.001$

자기관은 문제해결 중심($r=-.17,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회피($r=.19, p<.01$)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사회적지지 추구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의 문화적 특성

연구 대상이 가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변인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6.27, p<.001$). 즉, 본 연구에 수집된 대상은 주체성 자기관($M=4.52, SD=1.13$)이 대상성 자기관($M=3.74, SD=1.05$) 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문화적 자기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 분석한 결과, 남녀 간의 자기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주체성 자기관($t=1.95, p>.05$), 대상성 자기관($t=-1.20, p>.05$)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표본이 가진 특성처럼 남($t=5.35, p<.001$), 여($t=3.90, p<.001$) 모두 주체성 자기관이 대상성 자기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경우 대상성 자기관 보다 주체성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한민 등, 2009).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대처방식의 차이 검증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M=2.21, SD=.42$), 사회적지지 추구($M=2.04, SD=.36$), 그리고 회피 대처($M=1.71, SD=.36$)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해결 중심 대처($M=2.20, SD=.36$),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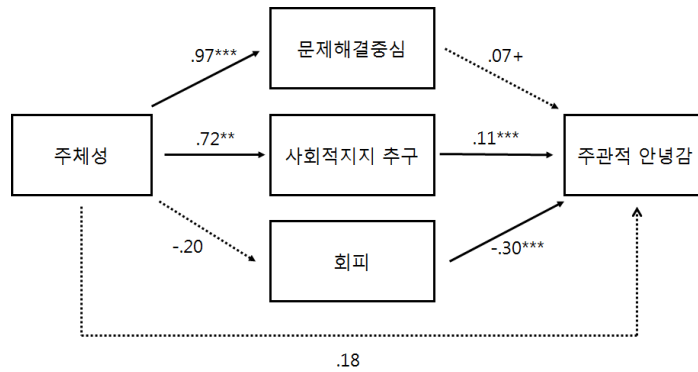
회적지지 추구($M=2.21, SD=.46$), 회피 대처($M=1.83, SD=.35$)로 나타났다. 차이 검증 결과 사회적지지 추구($t=-2.79, p<.01$)와 회피적 대처($t=-2.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혜진, 김창대(2002), 오선향(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 대처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주체성 자기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를 통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나이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나이를 통제하고 주체성 자기관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6, p<.05$).

주체성 자기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매개효과

주체성 자기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의 모델 4에 독립 변인에 주체성 자기관, 종속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 그리고 매개 변인에는 문제해결 중심, 사회적지지 추구, 회피 중심 대처를 투입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을 통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에 대한 모형은 그림 2에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주체성 자기관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다중매개모형 결과

표 2. 주체성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별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주체성 자기	문제해결중심	.97	.24	3.99**	.49	1.44	5.44**	.07
주체성 자기	사회적지지 추구	.72	.28	2.60**	.17	1.26	5.31**	.07
주체성 자기	회피 중심	-.20	.23	-.86	-.65	.26	3.03	.04
주체성 자기	주관적 안녕감	.39	.17	2.34*	.06	.72	3.01*	.04
주체성 자기		.18	.15	1.21	-.12	.48		
문제해결중심	주관적 안녕감	.07	.04	1.72	-.01	.16	13.22***	.26
사회적지지 추구		.11	.04	3.07**	.04	.19		
회피 중심		-.30	.04	-7.18***	-.39	-.22		

* $p < .05$, ** $p < .01$, *** $p < .001$

다음과 같다. 주체성 자기관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추구를 많이 사용하며($B = .72, p < .01$), 사회적지지 추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1, p < .001$). 또한, 주체성 자기관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97, p < .001$),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 p > .05$). 주체성 자기관과 회피 중심 대처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회피 중심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만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 = -.30, p < .001$).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는 매개변인을 고려하면 직접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 = .18, p > .05$), 사회적지지 추구가 주체성 자기관과

표 3.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간접 효과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주체성 → 문제해결중심 → 주관적 안녕감	.07	.05	-.01	.18
주체성 → 사회적지지 추구 → 주관적 안녕감	.08	.04	.01	.17
주체성 → 회피 중심 → 주관적 안녕감	.06	.07	-.06	.19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각각에 대한 간접 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추구의 95% 신뢰구간은 [.01, .17]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해결 중심 대처와 회피 중심 대처의 신뢰구간은 각각 [-.01, .18], [-.07, .19]로 0을 포함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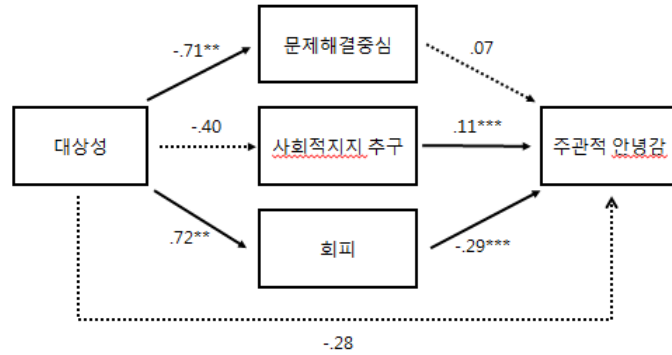
대상성 자기관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나이)을 통제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나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대상성 자기관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2, p < .01$).

대상성 자기관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매개효과

대상성 자기관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그리

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다중매개모델 및 비표준화 계수는 그림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성 자기관은 회피 중심 대처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 = .72, p < .01$), 문제해결중심 대처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 -.71, p < .01$). 매개변인인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사회적지지 추구는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며($B = .11, p < .001$), 회피 중심 대처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 -.29, p < .001$). 하지만, 문제해결 중심 대처는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7, p > .05$). 또한, 대상성 자기관이 주관적 안녕감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9, p > .05$). 따라서 회피 중심 대처가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간접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피 중심 대처의 95% 신뢰구간은 [-.38, -.07]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인 문제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대상성 자기관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다중매개모형 결과

표 4. 대상성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별 매개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95% CI		F	R ²
					LL	UL		
대상성 자기	문제해결중심	-.71	.27	-2.67**	-1.24	-.19	2.46	.03
대상성 자기	사회적지지 추구	-.40	.30	-1.31	-1.00	.20	3.60*	.05
대상성 자기	회피 중심	.72	.24	2.94**	.24	1.20	6.00**	.07
대상성 자기	주관적 안녕감	-.59	.18	-3.32**	-.94	-.24	4.88**	.06
대상성 자기		-.28	.16	-1.74	-.61	.04		
문제해결중심	주관적 안녕감	.07	.04	1.77	-.01	.16	13.55***	.27
사회적지지 추구		.11	.04	3.07**	.04	.19		
회피 중심		-.29	.04	-6.70***	-.38	-.2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유형별 간접 효과

경로	효과크기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대상성 → 문제해결중심 → 주관적 안녕감	-.05	.04	-.15	.00
대상성 → 사회적지지 추구 → 주관적 안녕감	-.05	.04	-.13	.03
대상성 → 회피 중심 → 주관적 안녕감	-.21	.08	-.38	-.07

해결 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의 신뢰구간은 각각 [-.15, .00], [-.13, .03]로 0이 포함되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개인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활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Aldwin, 2007; Kuo, 2013; Chun et al. 2006; DeLongis, Holtzman, 2005)을 바탕으로,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특성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관계없이 주체성 자기관이 대상성 자기관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문화가, 관계적 맥락에서 타인의 영향력을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상성 자기관을 발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누미야, 2003; 이누미야, 김운주, 2006; 이누미야 등, 2007). 변인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주체성 자기관과 정적 상관, 대상성 자기관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적 자기관과 적응 관련 변인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나래, 이기학, 2016; 한민 등, 2013). 안녕감과 각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상관관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 중심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와는 정적, 회피 중

심 대처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다만, 문제해결 중심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식과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의 선행 연구들에 비해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윤태상, 신희천, 2018; 이민정, 최진아, 2013; 함경애, 변복희, 천성문, 2011).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에 따라 문화적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먼저, 주체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체성 자기관은 문제해결중심 및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체성 자기관의 특징이 이차적 평가와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대처 목표 설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같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며, 주체성이 대상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문제해결중심 대처와 조력추구와 정적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류승아 등, 2014). 그러나 회피 중심 대처는 본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주체성 자기의 특징을 통해 분석하자면, 주체성 자기는 자신의 영향력을 추구하며 외부 환경을 통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관계적 맥락에서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는 달리 주체성 자기는 자기 자신의 욕구뿐만 아니라 집단의 욕구 또한 일정

부분 고려하여 절충하고자 하기 때문에 회피 중심 대처 활용 또한 고려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주체성 자기관이 문제해결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스트레스 전략을 활용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만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문제해결중심 대처 방식이 개인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는 상충된다(강혜자, 2012;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 한 방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 결과에 사용된 주관적 안녕감은 이를 처음으로 제안한 Diener(1984)의 방식에 따라 삶의 만족과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통해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연구 참가자는 자신의 정서에 대해 최근 1달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주관적 안녕감은 시간적으로 단기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문제해결중심 대처는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해결 중심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 사건을 해소하는데 돕고,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주체성 자기가 개인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해결중심 대처의 활용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성 자기관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회피 중심 대처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자율성 보다는 집단 간의 상호의존성을 중요시하며, 집단의 준거의 틀에 맞춰 자기를 인식하려는 경향은 정서 조절이나 문제 회피를 통해 스트레스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김광웅, 2007; Bjorck et al., 2001). 또한, 대상성의 특징인 자기 내적으로 통제하려는 외적통제 경향(Gianakos, 2002)과,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Smith, 1991)가 소극적이고 회피하려는 대처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만, 기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문제해결중심 대처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방식과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성 자기관이 문제해결중심 대처를 적게 활용하도록 하였으나 사회적지지 추구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상성이 주체성 보다 우세할수록 타인의 조력을 추구하는 방식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류승아 등, 2014)와는 상이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김광은(2004)의 연구에서는 애착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성취를 위해 인간관계를 부차적으로 여기는 것은 사회적지지 추구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상성의 대인관계 특성을 살펴보면 스스로를 고립하려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리적인 부분보다는 관계 자체를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누미야 등, 2007).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성이 사회적지지 추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

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새로운 문화적 자기관 개념을 통해 우리나라를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여, 주체성-대상성 자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 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개념과 차별점이 나타나며, 보다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문화 성향과 관계된 연구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적 특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스트레스 대처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적 자기관과 적응 간의 관계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나래, 이기학, 2016). 즉, 주체성 자기관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적응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상성 자기관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회피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응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주체성, 대상성 자기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와의 차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상이하게 보고된 문화와 대처방식 간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확장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아시아 인들을 통합하여 연구되었으나 집단주의 문화 또한 대인관계에서 영향력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한민 등, 2009).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 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Chang, 1996; Tweed et al., 2004; Yeh & Inose, 2002)의 결과가 기존 이론의 가정과 상이하게 보고되는 것은 이러

한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Kim, Won, Liu, Liu, 그리고 Kitanishi(1997)의 연구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는 주체성 자기관이 우세한 국가로써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보다 이차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주체성 자기 성향이 낮은 일본과 중국 보다 스트레스에 대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한민 등 2009). 넷째,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특성을 탐색함에 있어서 문화적 자기관, 즉 대인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한 자기 해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특히, 상담자는 내담자의 개인적 특성, 호소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해 대처했던 경험들을 탐색함으로써 상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박지현, 황윤미, 2013; Sperry & Sperry, 2012). 따라서 내담자의 문화적 자기관에 대한 이해는 사전에 내담자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측하게 함으로써 내담자 탐색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관계를 수용하고자 하는 대상성 자기 성향을 가진 내담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상담자는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내담자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성 자기가 높은 내담자는 스트레스 대처방식 활용에 있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부적응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이누미야 등(2007)의 제안과 선행 연구(이누미야, 김윤주, 2006; 한민 등, 2013)들을 종합하여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를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 목표의 차원을 통해 추론하였으나, 연구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걸쳐 나타난 결과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주체성, 대상성 자기관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와 대처 목표 설정의 관계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과 일반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그러나 대처 양식의 효과는 문화적 맥락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달라질 수 있다(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Yeh와 Inose(2002)의 연구에서는 미국에 이민한 한·중·일 학생의 이민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확인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일본의 학생들은 사회적지지 추구 전략을 한국 학생보다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대상성 자기가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체성-대상성 자기관 또한 상황에 따라 다른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 대처방식의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소재 특정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을 수강하는 대학생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따라서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안녕감 간의 관계성이 다른 연구와 차이가 있는 만큼 연구대상을 다른 지역 대학, 직장

인 등으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하나 (2018).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진령 (2005). 한국 상담의 비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9, 23-42.
- 강혜자 (2012). 대학생의 지연행동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담론 201, 15(1), 67-92.
- 공수자, 이은희 (2006). 여자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21-40.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할까?.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43-166.
- 기현정 (2010).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마음 챙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광웅 (2007).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83-999.
- 김나래, 이기학 (2016). 대학생의 일 자유의지와 진로만족의 관계- 문화적 자기관의 조절효과. 진로교육연구, 29(1), 47-64.
- 김나미, 김신섭 (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

- 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125-1144.
- 김창대 (1994). 상담과학의 문화적 맥락. 청소년상담연구, 2, 19-41.
-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69-183.
- 류승아, 김경미, 한 민 (2014). 문화적 자기관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행복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3), 177-203.
- 박외숙 (1992). 미국내 아시안계 유학생들의 개인주의적-집합주의적 상담접근에 대한 상담효율성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1(1), 108-128.
- 박현경, 이영희 (2004). 집단상담 참가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상담자 역할기대 및 치료적 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571-596.
- 서 미, 최보영, 조한익 (2006).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71-288.
- 신혜진, 김창대 (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19-935.
- 오선향 (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성희 (2010).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고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태상, 신희천 (2018).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의미와 영적 의미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2), 189-210.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한일 비교 성격론. 日本研究, 11, 101-124.
-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9). 주체성-대상성 자기와 긍정적 한층의 관계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115-146.
-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윤주 (2006). 긍정적 한층의 한일비교: 주체성 자기와 대상성 자기에 의한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9-34.
- 이누미야, 한민, 이다인, 이주희, 김소혜 (2007). 주체성-대상성-자율성 자기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17-34.
- 이민정, 최진아 (2013).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739-3751.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한국적 상담 모형: 한국적 학교 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 상담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39-567.
- 이옥형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이은경 (2004).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경, 송미경, 양난미, 이동훈 (2016). 대학생의 회피애착과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3(1), 37-50.

-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이학주 (2006).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행복감과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7(3), 701-713.
- 임유경, 최영민, 최지영 (2013). 기질 및 성격,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우울증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31-350.
- 장성화, 김순자, 윤향숙, 박지현, 황윤미 (2013). 상담의 이론과 실제. *파주: 정민사*.
- 장통통 (2012). 문화적 자기관이 자기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재중 한국유학생과 재한 중국유학생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궁호 (2002). 문화성향과 허구적 독특성 지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91-111.
- 조민영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49-60.
- 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3). 사회비교와 행복의 관계에서 문화적 자기관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4), 577-597.
- 한민, 이누미야 요시유키, 김소혜, 장웨이 (2009).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1), 49-66.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 (2001). 스트레스 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대처양식의 유연성 제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23-143.
-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 함경애, 변복희, 천성문 (2011).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6), 2163-2176.
- 허재홍, 진현정 (2008). 문화성향에 따라 자기고양 편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4), 1475-1487.
- Aaker, J. L., & Lee, A. Y. (2001). "I" seek pleasures and "we" avoid pains: the role of self-regulatory goals in information processing and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8(1), 33-49.
- Aldwin, C. M. (2007). *Stress, coping, &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Amirkhan (1990). A factor analytically derived measure of coping: The coping strategy indica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66-1074.
- Anderson, C. R. (1977) Locus of control, coping behaviors, and performance in a stress sett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2(4), 446-451.
- Aponte, H. (1994). *Bread and spirit: Therapy with the new poor*. New York: W.W. Norton.

- Bjorck, J. P., Cuthbertson, W., Thurman, J. W., & Lee, Y. S. (2001). Ethnicity, coping, and distress among Korean Americans, Filipino Americans, and Caucasian America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4), 421-442.
- Cross, S. E. (1995). Self-construals, coping, and stress in cross-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6), 673-697.
- Chun, C.A. Moos, R. H., & Cronkite R. C. (2006). Culture: A fundamental context for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P. T. P. Wong & L. C. J. Wong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pp. 29-53). Dallas, TX: Spring.
- Chang, E. C. (1996). Cultural differences in optimism, pessimism, and coping: predictors of subsequent adjustment in Asi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and Cauc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113-123.
- Davies, M. I., & Clark, D. M. (1998). Thought suppression produces rebound effect with analogue post-traumatic intrusion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6*(6), 571-582.
- D' Connor, D. B., & Shimizu, M. (2002). Sense of personal control, stress and coping style: a cross cultural study. *Stress and Health, 18*(4), 173-183.
- DeLongis, A., & Holtzman, S. (2005). Coping in context: The role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in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73*(6), 1633-1656.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Diener, E. D.,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653-66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Diener, E., Oishi, S & Lucas, R.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403-25.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30-141.
- Essau, C. A., & Trommsdorff, G. (1996). Coping with university-related problems: A cross-cultural comparis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3), 315-328.
- Folkman, S., & Lazarus, R.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Folkman, S., Lazarus, R. S., Gruen, R.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71-579.
- Gianakos, I. (2002). Predictors of coping with work stress: The influences of sex, gender role, social desirability, and locus of control, *Sex Roles, 46*(5/6), 149-158.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im, K.-I., Won, H., Liu, X., Liu, P., & Kitanishi, K. (1997). Students' stress in china, japan and korea: A tran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3*(2), 87-94.
- Kuo, B. C. H. (2011). Culture' consequences on coping: Theories, evidences, and dimensional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2*(6), 1084-1100.
- Kuo, B. C. H. (2013). Collectivism and coping: current theories, evidence, and measurements of collective cop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3), 374-388.
- Kuo, B. C. H., & Gingrich, L. (2005). Correlates of self-construals among asian and caucasian undergraduates in canada: Cultural pattern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Guidance and Counseling, 20*(2), 78-88.
- Lazarus, R. S., & Folkman, S. (1991). The concept of coping. In A. Monat & R. S. Lazarus (Eds.),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pp. 189-206).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 Launier, R. (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M. Lewis (Eds.). *Perspective in interactional psychology*(pp. 287-327). New York: Plenum.
- Lee, A. Y., Aaker, J. L., & Gardner, W. L. (2000). The pleasures and pains of distinct self-construals: The role of interdependence in regulatory foc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122-1134.
- Lee, R. M., & Liu, H.-T. T. (2001). Coping with intergenerational family conflict: Comparison of asian american, hispanic, and europ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10-419.
- Levine, T. R., Bresnahan, M. J., Park, H. S., Lapinski, M. K., Wittenbaum, G. M., Shearman, S. M., Lee, S. Y., Chung, D. G., Ohashi, R. (2003). Self-construal scales lack validity.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2), 210-252.
- McGoldrick, M. M. (1992). Ethnicity and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Business Review, 5*(4), 437-459.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Parkes, K. R. (1984). Locus of control, cognitive appraisal, and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3), 655-668.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1), 2-24.
- Radford, M. H., Mann, L., Ohta, Y., & Nakane, Y. (1993). Differences between Australian and Japanese students in decisional self-esteem, decisional stress, and coping styl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4*(3), 284-297.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D., & Gelfand, M.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Smedema, S. M., Catalano, D., & Ebener, D. J. (2010). The relationship of coping, self-wor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53(3), 131-142.
- Smith, C. A. (1991). The self, appraisal, and coping.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pp. 116-137). Elmsford, NY: Pergamon Press.
- Sperry, L. & Sperry, J. (2012). *Case conceptualization: Mastering this competency with ease and confidence*. New York, NY: Routledge.
- Taylor, S. E., Sherman D. K., Kim, H. S., Jarcho, J., Takagi, K., & Dungan, M. S. (2004). Culture and social support: Who seeks it and why?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7(3), 354-362.
- Tweed, R. G., White, K., & Lehman, D. R. (2004). Culture, stress, and coping: Internally and externally targeted control strategies of European Canadians, East Asian Canadians, and Japanes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6), 652-668.
- Wong, P. T. P., & Ujimoto, K. V. (1998). The elderly: Their stress, coping, and mental health. In N. W. S. Zane (Ed.), *Handbook of asian american psychology* (pp. 165-20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Yeh, C., & Inose, M. (2002).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chinese, japanese, and korean immigrant students. *Adolescence*, 37(145), 69-82.

원 고 접 수 일 : 2019. 06. 1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9. 16

게 재 결 정 일 : 2019. 10. 22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 and Subjective Well-being

Seung-Hoon Noh

Ki-Hak Lee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Stude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problem-solving, social support seeking, avoid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trual (subjective, obj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SWB). Participants were 235 (83 males, 147 females) Korean undergraduates administered measures including a survey of the main factors, the K-CSI, SWLS, ITAS and Cultural Self-construal Scale.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sed to test for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elf-construal and SWB was fully mediated by social support seeking only. Additionally, avoidance coping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objective self-construal and SWB.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oping strategies are affected by personal cultural factors, and that their relationship to SWB should be studied in the stress coping context. Implications for counseling,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cultural self-construal, subjective self, objective self, stress coping strategies, subjective well-being